

최고 수확은 '자신감'... 이제 두려울 게 없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 2-0으로 독일을 이긴 한국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리그 부흥·8월 아시안게임·내년 아시안컵 도약 발판 마련 축구협 파벌 논란·기본기·수비 불안·골 결정력 여전히 과제

다시 뛰는 한국축구

'카잔의 기적'을 만든 한국 축구대표팀이 미래를 위해 다시 뛰는 중이다.

27일 열린 독일과의 F조 최종전을 끝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 일정을 마친 한국 축구대표팀이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3년여에 걸친 러시아월드컵의 여정은 끝나지만 한국 축구는 새로 출발하게 된다.

소속팀으로 돌아간 대표팀은 내년 1월 아시안컵에서 다시 호흡을 맞춘다. 누가 아시안컵의 사령관

을 맡게 될지는 미확정이다.

감독으로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밟았던 신태용 감독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앞으로 계약 연장 또는 신임 감독 선임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K리그가 먼저 국내에서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한 붐 조성해 나간다.

프로축구 1부리그인 K리그1이 다음달 7일 재개된다.

이재성·이용·김신욱 등 '전북 트리오'와 놀라운 활동력으로 이목을 끈 문선민(인천)이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적으로 만나게 된다. 신들린 선방소로

러시아월드컵의 스타로 등극한 '대해아' 조현우(대구)는 8일 고요한(FC 서울)의 공세를 막게 된다.

앞서 30일부터는 K리그 2 경기가 시작된다.

윤영선(성남)이 30일 부천 원정을 앞두고 있고, 주세종의 팀 아산은 7월 1일 광주 FC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정우영, 김승규(이상 빙셀 고베), 장현수(FC도쿄) 등 J리그와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김영권(광저우) 등은 다음달 중순부터 리그 일정에 돌입한다.

유럽파 선수들은 재출전의 시간을 갖는다.

지난 2017-2018시즌 18골을 포함해 개인 최다 공격 포인트(29개)를 쌓았던 손흥민은 8월 11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기다린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과 황희찬(잘츠부르크)이 속한 독일 분데스리가는 8월 24일 시작한다.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과 '막내' 이승우(엘라스 베로나)는 새 팀을 찾은 전망이다.

기성용은 스완지시티가 2부리그로 강등된 뒤,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우 역시 소속팀 베로나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1부리그)에서 2부리그로 강등되면서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아시안컵에 앞서 아시안게임에서 '카잔의 기적'을 만든 멤버들을 만날 수 있다.

김학범 감독이 지휘하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이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으로 건너간다. 23세 이하인 황희찬, 이승우를 비롯해 와일드카드로 언급되는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전서 '이번의 주인공'이 되며 앞선 부진은 만회했지만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해 남은 숙제는 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는 실패로 끝났다.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안팎으로 잡음들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7월 4일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의 뒤를 이어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뒤 내내 수비 불안과 골 결정력이라는 숙제가 따라다녔다.

'기본기'도 문제였다. 한국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패스와 크로스의 정교함에서 약점을 보였고, 수비 기본기 부족으로 두 경기 연속 페널티킥 실점을 허용했다.

축구협회의 파벌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월드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냉랭했다. 독일전 승리로 희망의 불씨는 살렸지만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겪었던 '무관심'을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볼 점유율 30%에도 강력했던 '한 방'

한국, 패스 성공율·슈팅 압도적 열세에도 독일 보다 3km 더 뛰며 투혼

한국 축구대표팀이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상대로 볼 점유율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도 한 발 더 뛰고 결정적인 한 방으로 '그라운드 반란'을 일으켰다.

한국은 28일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전차군단' 독일과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김영권(광저우)과 손흥민(토트넘)의 연속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누렸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겨졌던 대결에서 한국이 우승 후보로까지 꼽혔던 독일을 잡은 원동력은 한 발 더 뛰고, 빠른 역습을 이용한 순도 높은 공격을 펼쳤기 때문이다.

기록에서 독일의 점유율 추구가 확인된다.

독일은 볼 점유율에서 70%로 30%의 한국을 배 이상 앞섰다. 패스도 725회 중 625회 성공했다. 반면 한국은 공을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적었고, 패스도 241회 중 178회 성공에 그쳤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은 한 발 더 뛰며 독일의 높은 볼 점유율을 상쇄했다.

우리 선수들이 뛴 총 거리는 118km로 115km의 독일보다 3km가 많았다. 패스로 높은 점유율을 가

진 독일의 벽을 넘기 위해 태극전사들이 체력이 고갈될 정도로 그라운드를 누빈 것이다.

골 결정력에서도 독일을 앞섰다.

한국은 스웨덴과 1차전에서는 전체 유효 슈팅 수 '제로' 불명예를 안았다. 간판 골잡이인 손흥민은 스웨덴전에서 수비에 치중하느라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결국 한국은 0-1로 패배했다.

독일전에서는 달랐다.

슈팅 수에서 한국이 11개로 26개의 독일보다 15개가 적었다. 그러나 유효 슈팅은 5개로 6개의 독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은 유효 슈팅 5개 중 2개를 골로 연결했다.

하지만 승리의 상처도 적지 않았다.

한국은 네 명이 옐로카드를 받고 파울 수에서도 16개로 독일의 7개보다 배 이상 많았다. 정우영(빙셀 고베)과 이재성(전북), 문선민(인천)은 물론 에이스인 손흥민도 경고를 받았다. 불명예 기록이기보다는 그만큼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독일과 맞선 우리 선수들 투혼의 반증인 셈이다. /연합뉴스



브라질·스위스 16강 합류

브라질과 스위스가 나란히 조별리그를 무패로 마무리하고 16강에 올랐다.

브라질은 28일 세르비아와 치른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E조 3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월드컵 최다 우승국(5회) 브라질은 1차전에서 스위스와 1-1로 비겼지만 이후 코스타리카(2-0 승)와 세르비아를 연달아 꺾고 2승 1무(승점 7),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같은 시각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스위스는 코스타리카와 2-2로 비겨 1승 2무(승점 5),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연합뉴스

'16강 탈락' 아름다운 패자들

아이슬란드 강호들과 끈질긴 승부... 첫 본선 파나마 영 상대 첫 골 '화제'

2주간 진행된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도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나라들이 있다.

FIFA 랭킹 57위 한국은 28일 끝난 F조 3차전에서 '전차군단' 독일(1위)을 2-0으로 꺾는 이번 대회 최고의 이변을 일으켰다.

한국의 FIFA 랭킹은 이번 대회 출전한 32개국 가운데 일본(61위), 사우디아라비아(67위), 러시아(70위) 다음인 29번째에 해당하는 낮은 순위였다.

선수단 전체 몸값이 독일이 한국의 10배에 이르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독일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됐지만 한국이 2-0으로 이겼다.

전 세계는 최강 독일의 탈락에 놀랐고,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투혼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말고도 '장렬한 탈락'을 당한 팀들이 더 있다.

B조의 이란과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한 조로 묶여 일찌감치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매 경기 투혼을 불사하며 유럽의 두 강호를 괴롭혔다. /연합뉴스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모두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비디오판독(VAR)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판정에 손해를 봤다는 평을 들었다.

이란은 특유의 끈질긴 팀 컬러를 앞세워 1승 1무 1패로 본선했다. 특히 0-1로 패한 스페인과 경기에서는 동점 골까지 넣었으나 VAR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석연치 않다는 뒷말이 나왔다.

D조의 아이슬랜드는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부터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팀이다.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 16강에서 잉글랜드를 꺾는 파란을 일으킨 아이슬랜드는 인구 34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이번 대회 1차전에서 '우승후보' 아르헨티나와 1-1로 비기는 등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발휘했다.

G조에서 2패로 일찌감치 탈락이 확정된 파나마는 월드컵 본선에 처음 진출해 강호 잉글랜드를 상대로 첫 골의 감격을 누렸다. /연합뉴스